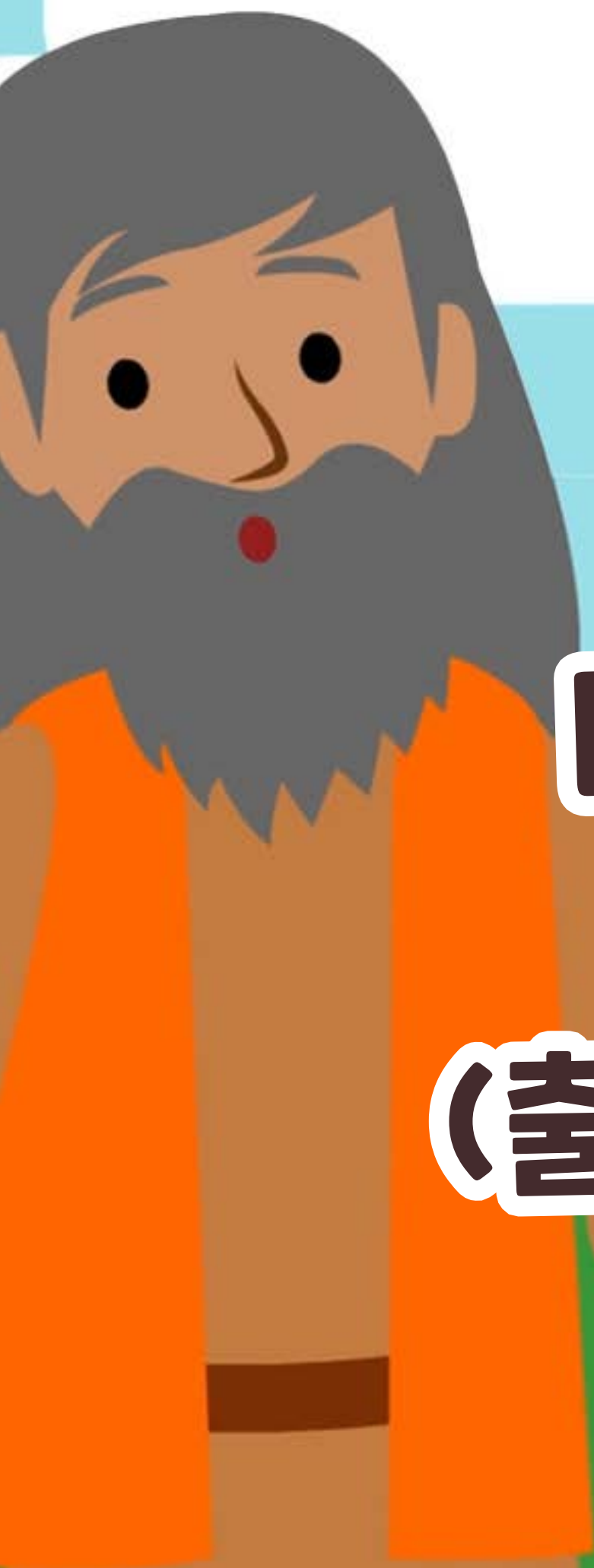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8

불타는 떨기나무

(출애굽기 2:11~3:22)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다음날
모세가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모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말렸죠.

**“이보십시오. 그만들 싸우세요.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싸우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모세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거, 왜 참견이요?
왜,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일 생각이신가?”**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한 일이 탄로나 버렸구나.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걸 파라오가 알면
분명 나를 가만두지 않을거야.’**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긴 모세는
최대한 멀리 멀리 도망치기로 했어요.
사막을 가로질러 오래도록 걸은 모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우물곁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일곱 명의 여인들이 양에게 먹일
물을 길으러 우물로 다가왔죠.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남자 목동들이
우물가로 오더니 그 여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허, 여기가 누구 우물가라고 한가롭게
물을 길고 계시나?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들 모르시오? 엉?”**

**“거,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쇼들!
우리 양들 먼저 물을 먹여야되니까. 에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본 모세가
가만있을 리가 없었어요.**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여기서 다 보고 있었는데
저 여인들이 먼저 와서 물을 길고 있었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여인들을 내쫓는 것이요?
당장 돌아가지 못해?”**

체격이 좋은 모세가 다그치자
나쁜 목자들은 짹 소리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모세는 여인들을 도와서
양 떼에 물까지 먹여주었죠.

사실 그 여인들은 미디안 땅의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딸들을 보고
이드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돌아왔느냐?
오늘은 우물가에서 휘방 놓는 녀석들이 없었느냐?”

그러자, 딸들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아니예요 아버지. 오늘도 나쁜 목동들이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는데요.
어떤 남자 분이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던거구요.”**

그러자 이드로가 말했어요.

**“뭐라구? 아니, 그런데 왜 그분을 모시고
오지 않은게냐?
당장에 그분을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딱히 갈 곳이 없었던 모세에게
이드로의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고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나아지지는커녕
더 고달픈 삶이 계속됐어요.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했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 채
어마어마한 양의 일들을 해야만 했죠.

“오.. 하나님... 더 이상은
저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을까요?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이제 완전히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집트 왕족들의 옷 대신 허름한 외투를 입었고
손에는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를 쥐었죠.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하루는 모세가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
호렙 산을 오르는데
곳에서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이집트 주변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중에 ‘떨기나무’라는 게
있었는데,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서는 활활 타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다 저기에 불이 붙은걸까?
뭐, 조금 있으면...
나무가 재로 변해서 불도 꺼지겠지.”**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무는 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거예요.**

**“엉? 세상에 별 일이 다 있구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모세가 호기심에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불꽃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예..? 저요? 누, 누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나는 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단다.
그들이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었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아주 아주 좋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모세, 바로 너를 통해서 말이다!”**

**모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신다는 말에
좋았지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낸단 말입니까?
저는 보잘 것 없는 양치기 목자인걸요.
에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아직도 저를,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구요!”**

그러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모세야,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이동할 거라고 말해주거라.
그리고 너는 이집트 파라오에게로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말하거라.
파라오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 큰 능력을 보여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라 하더라도
충분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파라오와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만 생겨났죠.

여러분, 과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능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